

# ‘무소유’ 만 좇는 거지가 되려는가



덕조 스님      덕현 스님      덕운 스님

덕현 스님은 이사취임 직후인 6월 본지와 인터넷에서도 이사와 주지직을 흔들었다.

“법정 스님은 임직하기 전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 많이 걱정하셨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 길상사나 맑고향기롭게의 구심력 흔들리고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어 스님은 “맑고향기롭게는 시작 직후 법정 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담보상태에 머물러있었다”고 설명했다. 며칠 후 길상사에서 삼초회 음악회가 있던 날 신문을 들고 맑고향기롭게 사무실을 찾았다. 맑고향기롭게에서 10여 년간 활동했다는 한 활동가는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스님이 정말 맑고향기롭게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나? 그것을 그대로 쓰는 기자가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는 물론 덕현 스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내포돼

있었다.

사람들은 前 주지 덕조 스님이 2000년부터 이뤄놓은 길상사에 2009년 3월 새로 취임한 덕현 스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당시 이사직을 맡았던 관계자에 따르면 덕현 스님에게 대들거나 원망하고, 길상사를 떠나는 신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길상사나 맑고향기롭게에서 주요직을 맡은 이도 있었다. 덕현 스님은 떠나면서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 적지 않은 반대, 굵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 왔다”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욕심과 야망, 시기심, 그리고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고충과 충심을 헤아리지 않고 그 결과와 처신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매도하는 말들, 그 뒤에 숨은 야심(我相)들이었다”고 말했다. 외로운 분투였다. 스님은 소식지에

서 종종 “자신이 없다”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선임을 전후해 나는 길상사 주지가 됐을 때 못지않게 몹시 마음이 무겁고 스스로에 대해 깊은 연민과 비애감을 품었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심경은 슬프고 우울하다”는 등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맑고향기롭게 윤정광 이사는 “맑고향기롭게에 내부적인 소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스님의 글 그대로 보면 될 것”이라며 “NGO로서 본 역할에 충실하고 법정 스님의 뜻과 정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태연한 입장 표명만 했다. 덕현 스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도 많았지만 덕현 스님은 맑고향기롭게 이사회에서 만든 ‘왕따’였다.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덕현 스님은 스스로 ‘공격당했다’ 표현했다. 스님은 17일 해제법문에서 “이사회를 한 번 할 때마다 봉변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구심력을 갖기 위해 법정 스님을 맑고향기롭게의 영구 회주로 추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사회나 대의원회는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종교를 초월한 시민 모임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면 정체성을 흐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사회에서는 덕현 스님의 사직서를 두고도 설왕설래 했었다. 이 과정에서 덕현 스님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걸망을 지고 떠났다.

덕현 스님의 발언과 행동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법정 스님 1주기가 끝나고 해도 될 일이었다. 동안계 해제 법문의 내용으로 부적절 하다고 볼 수도 있

다. 이사회 측근의 “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인민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법정 스님은 물론 불교계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다”는 반응도 일리가 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것이 아니다. 물론 신도들의 것도 아니고 이사회들의 것도 법정 스님의 상좌들의 것도 아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는 아욕과 실리에 사라졌다.

법정 스님의 후광이 무섭게 느껴진다. 스님이 작은 말뚝까지도 갖고 가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법정 스님의 상좌라는 이유로 영결절에 유명세를 타 번거로운 삶을 사는 출가 수행자들의 고초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불일암에서 주석하는 덕조 스님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보러 오는 것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스님을 모시는 것이기에 불일암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덕현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스승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부분을 거역할 수 없어 그동안 여기 있었다”고 했다. 불법을 배워 절에 가기보다 불상에 기도를 하기 위해 가는 무지몽매한 중생처럼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상좌에게 법정 스님의 향기를 느끼려 한 것은 아니지. 아니 그들에게 법정 스님과 같은 삶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정 ‘나’다운 삶 없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만 좇는 거지가 되는 일은 순간이다.

이상연 기자

## 한국불교대토론회 특별기고

### “그래도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그것이다. 국가란 정부와 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이다. 시장은 자본주의적 기업이 대표한다. 시민사회의 조직적 실체로서는 비영리 영역의 단체다. 우리가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를 다룰 때는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시스템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원칙 아래의 자유민주 정치체제에서 대부분 의회(국회) 다수이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다. 현대사회에서 의회정치는 경제사회인 시장, 생활세계인 시민사회로부터 한 의제 중 하나였다.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에 있어서도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은 ‘종교와 국가 간에 분리의 벽 원칙(Wall of Separation Doctrine)과 비선호주의 원칙(Non-Preference Doctrine)’으로 해석된다. 요지는 정치(통치)는 ‘저승의 문제(영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와 정치 사이의 분리의 벽은 변경 불가능한 고정적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분리의 벽’의 수준을 정하는데 어떤 보편적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의제

로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보편적 지표를 둘러싼 정치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는 결정될 것이다. 다시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된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은 종교 본연의 문제 즉 ‘믿음과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질서 혹은 정치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바뀐다. 종교인 혹은 종교 교단이 정치권력과의 관계문제를 논할 때에 현실에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는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문화수호론’은 크게 볼 때 지역적인 의제이다. 근대국가가 대체로 민족을 근간으로 한 국가(정부)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국가(정부)다. 민족이 특수성이라면 ‘민주공화국’은 보편성이다. 민주공화국의 체제, 즉 정치질서 유지 차원의 문제로 종교적 배타성과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종교의 극단적인 종교적 배타성이나 정부의 특정종교 선호주의는 민주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100%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사회의 제로 토론되어야 한다. 2008년도 범불교대회에 명칭에 왜 ‘헌법수호’를 명시하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통의 담지자라는 목전의 기득권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유지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참답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남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 대토론회, 인터넷 토론 활성화 과제 남겨

### 제2차 대토론회 토론자와 네티즌… “대중 의견 상시 수렴해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2월 23일 개최한 제2차 한국불교대토론회를 위한 대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총체적인 주제 설정으로 발제 위주가 된 영향으로 토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양상이었다. 반면 지난 토론회에 대한 비판을 수렴해 현장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는 승가공동체의 수행기풍 확립과 박세일 교수의 정치참여 절제 발언으로 전문성을 지닌 재가자 활용 및 지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화두로 전개됐다. 박세일 교수는 “수행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속적인 일은 재가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부대중이 장점이 다르다. 현대적 경영관리, 교육관리가 필요하다면 전문성 가진 신도들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출가자 뿐 아니라 다 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해 불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도록 해야 한

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와 교단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불교교단이 국가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이 확립해야 한다. 종헌준비에 자기 원칙 담아야 교단이 사회 국가관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보호와 관련한 불교계 행보에 대해서는 신뢰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지난

1회 대토론회에는 60여 개에 달했던 댓글이 17개에 불과했다.

댓글 내용도 토론회 주제인 ‘교단과 국가’에 대한 의견 보다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제에 대한 평이 주를 이루었다.

“한 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다” “조계종 홈페이지부터 개선해 대중 의견을 항상 수렴해 달라” “언제까지 불교만 참아야 하나. 법을 만들어서 종교 차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등이 올라왔다.

노덕연 · 천진영 기자

## ‘명진 VS 진화’ 봉은사 내 갈등 심화

### 불만 고조된 신도들 성명서 발표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되면서 생긴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최근 홈페이지 내 前 주지 명진 스님의 홈페이지격인 지대방을 삭제했다. 신도들의 항의가 일자 홈페이지를 다시 오픈했다.

다음 카페 ‘명진 스님을 사랑하는 불교네티즌연대’는 명진 스님의 복귀와 직

영사찰 이전 이후의 봉은사의 재정 상태를 공개를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봉은사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하는 작전 하듯 명진 스님의 흔적을 없애려 한다”며 분노했다.

이번 사태는 봉은사가 직영사찰이 된 이후 불거진 갈등이 명진 스님을 따르던 종무원들이 직위해제 된 인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천진영 기자

# “스님, 보고 싶습니다”

형형색색의 만장도 꽃상여도 없이  
‘비구 법정’ 단 두 마디가 적힌 종이 위패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가르침을 일깨워주신 법정 스님.



근승량 가린법 비구, 법정 法頂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 사진집.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정 스님의 모습들을 통해 평생 걸작하는 수행자, 비구로 살기 원했던 당신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긴다.

사진집의 모든 사진은 한 장 한 장 액자에 넣어 법정 스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스님 추모 사진집

전시 일시 : 2011.3.2(수)

오후 5시~3시(화)

전시 장소 : 인사동 토포하우스

문의 : 02-734-7555

## 근승량 현정 사진집 비구, 법정 法頂

이 사진집은 서점(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집의 인세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 전액 기부됩니다.